

무한한 파동의 확장과 변주, 다시 마주한 데이터의 미학

●ACC 개관 10주년 기념 '료지 이케다' 개인전 리뷰

몰입형 사운드·비주얼 작품 등 신작 4점 포함 총 7점 선배
콘서트·여행처럼, 저마다의 해석으로 감상하는 열린 전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전자음. 마치 수술실의 심박 장치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소리 혹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기 직전의 지직거림 같기도 하다. 그 전자적 파형 속을 걷다 보면, 어느새 수많은 도시 풍경과 지형 이미지, 인간의 뇌와 신체 일부가 겹겹이 뒤섞이며 스크린을 가득 메운다. 마치 위성에서 촬영한 듯, 비행기가 땅에 가까워지며 지형이 구체화되는 순간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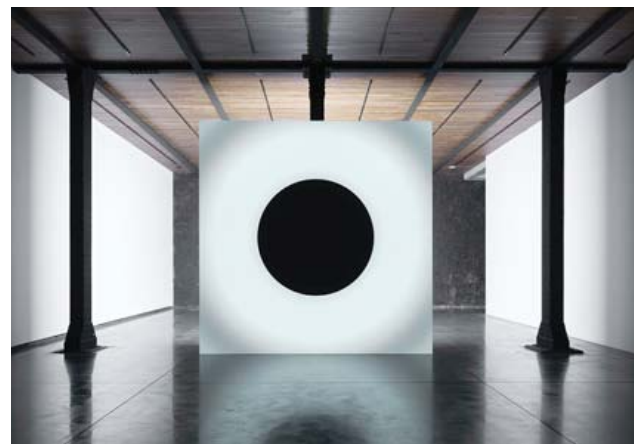
지난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 3·4관에서 개막한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 전시 풍경이다. ACC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2015년 창·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운드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와 10년 만에 다시 협업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그 출발점을 다시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오디오-비주얼 아트와 데이터 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그는 관객의 감각을 전면적으로 작동시키는 몰입형 작업을 통해 기술과 존재에 대한 사유를 유도해왔다.

료지 이케다는 이번 전시에 대해 "작품에 텍스트나 메시지를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작가의 해석이 개입되는 순간, 관람자의 해석이 위촉된다"며 "전시 전체를 하나의 콘서트이자 여행처럼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시실에는 해설 텍스트가 배제됐고, 관람객은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 스스로의 감각을 통해 작품을 받아들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4점을 포함한 총 7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data.flux [n° 2]' (2025)는 인간 DN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하학적 패턴이 10m 길이 LED 스크린을 통해 흐르며 감각의 밀도를 끌어올린다. 이어지는 'critical mass (2025)'는 10m x 10m 규모의 바닥 스크린과 신체를 울리는 전자음을 통해 압도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point of no return (2018)'은 블랙홀의 사건지평선을 모티브로 빛의 제적과 조명을 통해 이해의 경계를 시각화하며, 'exp #1 (2020)'은 레이저와 설치물로 공간과 빛



'data-flux 1/2/3'

의 관계를 드러낸다. ACC의 40m 벽면에 상영되는 'data-verse' 3부작 (2019-2020)은 CERN과 NASA, 인간게놈 프로젝트 등 실제 데이터를 시정각적으로 변환한 이케다의 대표작이다. 데이터의 스케일과 미학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분할 재구성 작품 'data.gram [n° 8]' (2025)도 복도 공간에 전시된다. 'sleeping beauty (2025)'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무리수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업은 바코드 형태의 시각 언어로 무한성과 수학적 질서를 구현한다. 이케다는 "무리수는 우리가 알기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무한히 이어지고 있다"며 "작품의 해석은 작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무한히 확장돼야 한다"



'point of no return'

고 말했다. 작가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전시는 음악의 추출과 다르지 않으며, 공간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사운드와 빛을 통해 감각적인 구조물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ACC라는 공간에서 구현된 이케다의 작품은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공간이 지닌 분



'data.flux [n° 2]'

위기와 감정의 층위까지 반영해 구성됐다. 데이터와 음향, 시각적 구조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엮인 이 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에 예술이 건네는 또 하나의 '작곡'처럼 은연하고도 큰 울림을 남긴다. /최명진 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청소년 건강체험학교' 운영

청소년 200명 대상...오는 24일까지 총 6차례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해 '2025 청소년 건강체험학교' (사진)를 운영한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건강체험학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적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체성분 분석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 포함한 건강측정 ▲놀이형 신체활동을 통한 영양·비만예방교육 흡연·음주·도박 등 중독예방 활동 ▲수중 성장운동 및 자유수영 등이 마련됐다. 최강남 단장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실천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이번 체험학교를 통해 건강보험의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숨'과 '침'...자연이 슬그머니 건네는 위로와 희망

주강정 개인전...내달 3일까지 목포 KR갤러리

KR갤러리는 10일 "오는 8월3일까지 주강정 작가의 첫 개인전 '앞의 시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바람, 햇살, 구름, 바다 등 일상 속 자연 풍경을 섬세한 색감과 시선으로 풀어낸 회화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작가는 자연이 품은 시간의 흐름과 감정을 회화로 표현하며, 관람객에게 삶의 여유와 치유의 순간을 전달한다. 전시 기간 중인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에는 라우트앙상블의 특별 공연도 열려,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주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이 전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관람객 한명 한명에게 닿길 바란다"며 "앞으로 신안군을 배경으로 한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대상 부관장은 "KR갤러리는 신진 작가의 발굴과 성장



2024년 제14회 국토해양환경 국제문화예술대전 서양화 부문 특선 수상작 '자은도 피아노섬'

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주 작가는 단체전과 2인전을 거쳐 이번 첫 개인전을 선보이며, 지역성과 담론을 담은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엄마 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 idolbom.go.kr

“여행의 모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캐논라이브

[호주 퀸즐랜드 여행 편]

2025 여름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게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8월 31일(일)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9월 8일(월)

캐논스토어
캐논코리아총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본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